

국가문화정보망 구축방향과 문제점 고찰*

— 문화예술단체별 자료 이용행태 및 이용자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ssues and Problems of National Culture Information Network Construction

김성혁(Sung-Hyuk Kim)** 정동열(Dong Youl Jeong)***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문화예술단체별 자료 이용행태 및 이용자 요구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1 이용행태 분석 |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2 이용자 요구분석 |
| 2. 문화예술정보의 특성과 문화정보망 | 4. 종합분석 및 제언 |
| 2.1 문화예술정보의 영역 | 4.1 종합분석 |
| 2.2 문화예술정보의 유형과 특성 | 4.2 제언 |
| 2.3 문화정보망의 성격 | |

초 록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정보망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자료특성 및 이용자의 문화정보 이용행태와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산하 21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자료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필요한 포맷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과 종합적인 문화정보망 구축에 요구되는 기본구조, 기차재, 인적자원 등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issues and problems with a view to construct the national culture information network. Twenty-one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s are survey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ata format, management structure, operating systems, personnel aspect, and user's behavior patterns and needs.

* 이 논문은 1993-4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논문접수일 : 1994년 4월 20일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화예술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특성과 자료처리 현황 및 처리 능력의 파악은 국가차원의 문화정보망 구축에 필수적이며, 국가문화정보망의 기본적인 형태는 각 문화예술관련 단체들을 개별 정보센터로 하여 문화예술자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보유자료와 정보처리 능력 및 이용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은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정보의 특성, 종류 및 그 보유량을 파악하고, 문화예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필요한 포맷 개발의 기초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장의 정보처리 전문가들의 정보처리 수준, 작업 환경, 전산화 수준 등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정보망의 독립적인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문화예술자료와 같은 비도서 MARC 표준 설계지원은 실제적 현장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단위 데이터의 소급입력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나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기관별 기술 및 제반 자원에는 기관별 자료관리 조직이나 체제 및 기자재, 인적 자원 등이 조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분야별 문예자료의 특성 파악은 물론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이용자의 요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문화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수의 기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기관의 구조 현황과 소장자료 현황, 문예정보관리 및 처리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로, 이용자와 기관에 대한 정보 이용행태와 요구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기관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공연윤리위원회, 독립기념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문화체육부, 서울예술단, 영화진흥공사, 예술의 전당,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21개 기관이며, 문화예술분야는 박물관, 음악, 문학, 미술, 디자인, 연극, 무용, 영화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기관 중 특수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10개를 선정하여 고유한 문화예술정보의 실물을 확인하여, 보관상태나 질 및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스캐닝 가능 여부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조사대상 기관들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문화정보망 구축자나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우리나라 문화예술기관의 정보관리 및 처리현황을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화예술정보의 특성과 문화정보망

2.1 문화예술정보의 영역

예술의 형식을 형태학적으로 구분하면 공간 예술, 시간예술, 시·공간예술로 나눌 수 있다. 공간예술은 회화, 그래픽, 조각, 건축, 응용예술 등의 조형예술을 말하며, 시간예술은 문학, 음악 등의 언어예술이며, 시·공간예술은 연극, 무용 등의 극예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술의 분류는 편의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용된 재료의 특수성, 예술작품을 수용하는 방식이나 방법, 예술작품의 발생방식 및 방법, 현실반영의 방식 및 방법, 예술적 모상의 현존형식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각 장르는 개별적 특징을 가지면서 상호 통합 보완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예술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축적과 검색면에서 일반 서지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공간예술정보는 화상정보가 필수적이며, 시·공간 예술은 영상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도 공간예술 중 조각, 건축 등은 회화나 그래픽과는 달리 완전한 삼차원정보이다.

문화정보는 지속성을 갖는다는 면에서 과학 기술정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증대하고 생산된 정보가 변형, 수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메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는 문화정보시스템에서는 정보 상호간의 관계를 표현한 의미 구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의 주제별 특

성과 함께 컴퓨터에 의한 처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정보의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개념적 모델 정립이 중요하다.

문화정보시스템은 사실, 형상, 조형물, 기록물 등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모든 문화 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을 정보라는 관점에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인간이 적절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생산해 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문화정보시스템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속성과 인간의 지적 활동과 정보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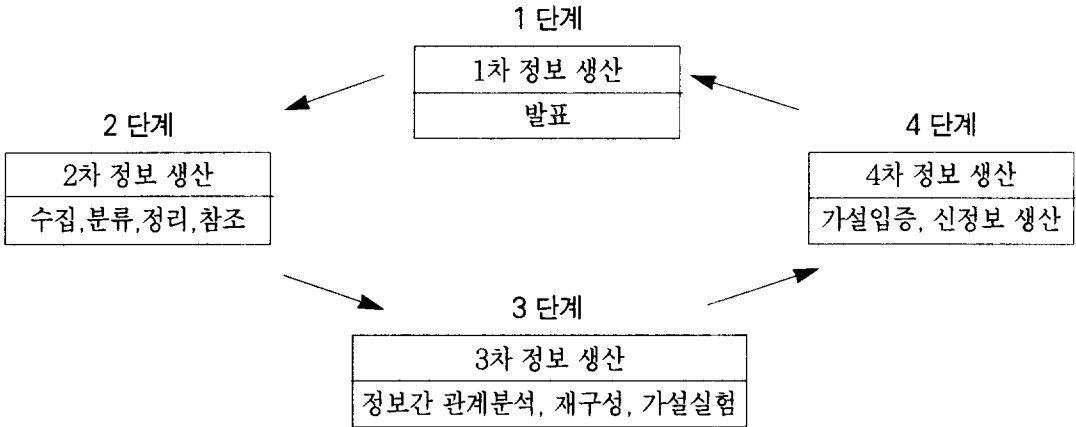
정보는 <그림1> 같은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보를 재창출하는 순환을 이루며 각 단계마다 생산되는 정보는 고유 특성을 지닌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각 단계에서 생산 또는 활용되는 정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정보의 분류 형태는 관리 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형상을 제시한다. 다만 폭증하는 정보 속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1, 2차 정보의 완벽한 수집·분류·기억·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정보처리 기계에 의존하게 되었고, 3, 4차 정보도 점차 기계적인 처리 기술들이 구현되어 가고 있다. 이 흐름에서 보면 이전 단계의 정보가 다음 단계의 데이터로 사용되어 새로운 정보의 창출을 유도하는데, 이와같이 발견 혹은 창출되는 정보가 다시 다음 단계의 데이터로서 작용하는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정보베이스 시스템을 지향하게 된다.

2.2 문화예술정보의 유형과 특성

문화예술정보는 예술의 장르나 관리기구의



〈그림 1〉 정보의 순환과정

분류 등에 따라 문학, 조형예술(회화 및 판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디자인(건축디자인,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의상디자인), 음악(성악, 기악, 작곡, 국악, 양악), 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연극(언어극, 뮤지컬, 창극, 마당극, 인형극 등), 영화, 연예(연주, 연기), 박물관, 문화재, 용어사전(분야별), 인명

(문화분야), 단체 및 기관(문화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록매체가 문헌, 도표, 사진, 필름(슬라이드, 비디오, 영화), 마이크로 필름, 녹음자료(오디오 테이프, DAT, CD, LD), 실물 등과 같이 다양해짐에 따라 매체를 중심으로 분류 관리되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정보를 그

〈표 1〉 단계별 정보의 구분

구 분	내 용
1차 정보	창조력을 바탕으로 1차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정보 (예) 문서, 그림, 영상, 악보, 음악, 조각
2차 정보	1차 정보간에 조합으로 발생한 순차적 정보로서 개념적, 논리적 관계를 인간의 판단에 의해 생성된 정보 (예) 백과사전, 하이퍼미디어 생산물, 서지, 목록, 디렉토리 등
3차 정보	1, 2차 정보에 누락된 정보간 관계를 학습, 추론, 유추 등의 고급기능에 의해 기계적으로 발견, 재구성한 정보
4차 정보	1, 2, 3차 정보를 근거로 기계에 의해 창출된 정보, 즉 인간에 의존하던 1차 정보의 생산

〈표 2〉 문화정보의 외형적 분류

형 태	형 식	내 용
텍스트 (문 자)	서지목록, 문헌전문 디렉토리 용어집/시소러스	전문데이터베이스 인명, 기관, 단체 다국어 용어집/문화 시소러스
(숫 자)	수치, 통계	지표, 연감자료
(기 호)	약보	약보 데이터베이스
소리 (음 성)	음악/악기음 음성 음향	연주, 현악 성악 자연음
화 상 (이 미 지)	사진 필름	팜플렛, 포스터 영화, 연극
동 화 상 (영상+소리)	애니메이션	문화재 복원

본질이나 매체보다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의하여 분류해 본다면 〈표 2〉와 같다.

이러한 특성이 경영정보나 과학기술정보보다 복잡한 정보처리 기술이 당장 필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정보는 여러 형태의 정보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 자체가 갖는 다의성, 상징성, 모호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가시적인 관계와 잠재적 관계를 발견·표현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고도의 응용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 정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처리 기술의 특성은 첫째, 화상정보의 처리에 필요성에 따라 정보용량이 거대하여야 하며 둘째, 동화상 정보처리에 따른 고속의 정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화상정보 전송시에 고속의 통신망이 필요하며 아울러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닌 감동의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고휘상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국내 정보처리산업과 정보

통신망의 발전, Pentium 등 소형 전산기 처리 속도의 혁신, CD-ROM 등 대용량 정보 저장 매체의 발달과 확산추세 등에 의하여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화정보의 내용적 특성에 속하는 의미구조 관리기술, 저장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문화정보라는 목표를 위하여 가공, 조립, 연계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국내에서는 시도된 바가 없다.

2.3 문화정보망의 성격

2.3.1 문화정보망의 정의

문화정보망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되는 문화활동의 결과물, 부산물과 함께 활동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문화정보를 활용하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관련정보를 공동으로 축

적·가공·유통·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포함된 논리적 조직체이다. 문화정보망의 성격은 용어의 정의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즉, 문화라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문화정보망의 주제범위가 결정되며, 정보라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문화정보망의 활동기능의 깊이가 결정된다.

첫째, 문화의 범위를 문화체육부 및 그 관련 기관이 관장하는 분야로 정의할 경우, 예술분야 대부분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의 열매에 해당하는 분야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들이 존재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많은 관련분야들이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보망은 앞에서 언급한 협의의 문화로부터 시작되지만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의 단계별 확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완전성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정보란 문화활동의 과정과 결과로부터 생산된 정보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처럼 계산이나 공식에 의해 재생산되거나, 인용에 의해 다음 단계로 전달되기 보다는 창조력을 바탕으로 재창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서체, 화풍, 연주 기법 등이 전수되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재현되거나 인용될 경우 모방 또는 표절에 속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정보의 경우는 소리, 화면, 데이터의 단순한 전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한 정보의 '의미구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그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정보망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정보에 대한 욕구를 마

치 인간이 직접 사고하는 것과 유사하고 친숙한 방법으로 해소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문화정보를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됨으로써 문화정보망의 직접적인 투자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자산의 보존은 민족의 독자성(identity)을 확보·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경우, 발표와 동시에 일부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사라져 버리며, 유형자산의 경우도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창작물이 그러하듯 복제 활용의 한계가 극명하여 진품 활용에 따른 훼손의 가능성이 크고, 일단 훼손된 후에는 엄청난 노력과 예산으로도 원상회복 확률이 매우 낮다. 또한 문화자산은 과학기술, 산업분야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광범위한 전파보다는 그 희귀성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문화자산의 원형 복원 정보와 관련 정보를 완벽히 보존 활용시킴으로써 반복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진품의 보존과 훼손 후에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문화자산의 활용에서는 작품의 유일성, 희귀성, 그리고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의 복제 활용 기피와 공연 전시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언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시·보급 체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비나 지역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또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교육 연구활동이 극도로 제한되고, 필요한 정보가 근원적으로 부족하거나 일부에만 편중된다. 따

라서 첨단 정보관리 기법을 구사하여 생산 보급되어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지역적으로 분산된 이용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정보가 감상·오락·취미 활동을 벗어나 교육과 연구활동에 활용되고, 축적된 정보가 새로운 정보의 재창조에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정보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술의 전환이 필요하다.

2.3.2 문화정보망의 기대효과

문화정보망의 구축은 문화활동의 활성화,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 및 문화정책의 과학화 등을 가져올 것이다.

첫째, 문화활동 전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단기효과로는 복지정책의 한 목표로서 문화향수권의 신장, 사회발전을 위한 예술창조자의 간접지원 및 창작여건 조성, 일반 국민을 위한 안방문예 아카이브의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효과로는 문화종속 탈피, 지역 균형발전, 국민의식 개혁 및 고양을 추구할 수 있다.

둘째,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 및 창출, 즉 문화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수익성 확대로 문화 정보산업의 확장이 용이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타 정보산업에의 기술 파급효과가 나타나며, 국제 정보산업에의 참여 및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산업의 문화화에 필요한 아이디어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한국적 독자성을 가진 창조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이 가능하다.

넷째, 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의 과학화로 중

복이나 과잉 투자 방지로 국가 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문화지표 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꾀할 수 있다.

3. 기관별 자료 이용행태 및 이용자 요구 분석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유형 무형의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정보를 추구하게 되는 동기는 개인이 소유한 현재 지식의 상태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추구동기는 인지적, 생리적, 심리적, 문화적 욕구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동기들은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연관된 과정으로 설명된다(Krikeles 1985).

일반 도서관이나 자료실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단체에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수집 및 봉사활동은 기관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수립과 관리가 요구된다. 즉, 국가적인 문화정보망의 구축은 국민들의 교육, 연구, 창작활동의 지원은 물론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련 단체의 소장자료 현황, 정보처리 현황 및 관련 내용분석은 물론 개별 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질적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나 요구분석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될 것이다. 문화예술단체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자료 정보봉사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분석

(need assessment)은 자체기관의 내적 분석(library analysis)과 그 기관과 관련된 외적 제반환경 분석(community analysis)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Greer & Hale 1982; Rouse & Rouse 1984).

21개 관련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그 특성이나 성격이 타 단체와 구분이 뚜렷한 8개 단체(국립국악원, 국립국어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진흥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설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이용행태 분석

각 단체별로 약 15명을 전후하여 전체 설문 조사 응답자 121명 중 남자가 58명(47.9%), 여자는 63명(52.1%)으로 남녀의 성별 구성이 비슷한 상황에서 분석되었다. 이용자의 연령별 특성은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 86명(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32명(26.4%), 40대가 3명(2.5%)로 문화예술단체의 주이용자는 20~30대로 보여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현재 직업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관련 단체 이용자의 반 이상이 대학생(37.3%)과 대학원생(21.1%)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외 기타 직업 구성은 공무원(9.1%), 연주단(3.5%), 교수(3.5%)와 작곡가, 작가, 학예연구사, 기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광고업자, 조감독, 영화인, 연극배우 등 폭넓은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학력에 대한 분포는 전체 응답자의 85.7%가 대학 재학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도 전체 응답자의 30.2%로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예술자료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이용자는 대학 재학생 혹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설문응답자 전원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으로 조사되었다.

각 관련 문화예술단체를 이용하게 된 동기나 계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친구나 선후배 등 개인적인 소개가 25%, 해당 단체의 안내문을 통한 것이 23.9%, 학교를 통하여가 18.2%,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가 13.6%, 그외 간행물 목록이나 업무상 또는 연수기회로 등 여러가지 응답이 조사되었다. 이는 개별 단체에서 능동적으로 안내문이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문화예술단체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개인적인 관심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이 대부분의 단체에서 가장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문예단체에 따라 다소 특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방문 목적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는 <표 3>과 같다. 업무용 자료를 구하기 위함도 대부분의 단체에서 균등히 응답하였으

<표 3> 문화예술단체 방문목적

방 문 목 적	비율(%)
개인적인 관심분야의 자료수집	32
업무용	25
학위논문 준비 자료수집	18
학교수업 준비	12
여가 선용	7
공연준비	2
교양	2
연수	1
자녀교육	1

며,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국어연구원의 경우 학위논문 준비 자료조사를 위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자들의 문화예술단체 방문 빈도는 거의 매일 방문하는 응답에서 1년에 한 두번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 달에 두번 정도가 26.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매주 한 두번 정도(14.8%), 1년에 한 두번(12.5%), 거의 매일(10.2%) 등으로 50%이상이 한 달에 두번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부정기적 방문도 21.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들로서 방학때 방문 빈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설문자료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이용자 행태나 특성은 일반 도서관이나 자료실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용목적이나 이용행태는 물론이거나와 가장 뚜렷한 현상은 문화예술단체의 방문이나 이용은 특정 형태의 정보를 현재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에서 연유된다는 사실이다.

3.2 이용자 요구분석

문화예술단체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질문을 구성하여 응답된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료 이용시에 주로 활용하는 정보접근 도구(tool)의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은 거의 대부분이 '카드목록'과 '담당자의 도움'으로서 대등하게 1순위, 2순위로 분석되었다. 물론 서지나 자료목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접근도 10% 정도로 응답했으나, 아직까지 문화예술

단체 자체의 자료전산화가 미비한 실정에서 담당자의 역할과 카드목록의 기능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몇 명의 응답자는 단체에서 소장한 자료가 얼마되지 않아 자료실을 한바퀴만 돌면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나라 문화예술단체의 현 상황을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각 단체의 자료와 정보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자료관리 및 보관상태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80% 이상이 보통 이상 혹은 매우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20% 정도가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많다는 응답을 보였다. 만족한 점과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표 4>와 <표 5>

<표 4> 문화예술단체 자료 이용시 만족한 점

만족한 점	응답수
타단체에 비하여 자료가 많고 친절함	9
유일한 참조할 곳	7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	6
작품의 종류와 보관상태	6
사용하기 편리하다	6
보관이 양호	5
체계적인 자료관리	5
비교적 최신의 잡지와 비디오 구비	4
풍부한 자료	4
대부분 신청자료가 구비되어	
신청과 동시에 이용 가능	4
시중에서 수집이 곤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3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점	2
자료 찾기가 용이하다	2

와 같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타단체에 비하여 전문자료가 많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자료를 참조하기에 유일한 곳이라는 응답은 문화예술 단체의 전문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외의 내용은 자료이용에 필요한 부대환경이나 자료의 관리상태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어

〈표 5〉 문화예술단체 자료 이용시 개선할 점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응답수
(최신)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16
전산화가 바람직하다	8
전산단말기로 자료를 더욱 쉽게 검색	7
전문자료의 심각한 부족 현상	7
체계적인 자료정리의 미흡	6
장소가 협소하다 (공간확대)	6
국외정기간행물이 부족	6
대출기간을 지키지 않아 없는 자료가 많다	5
열람용 모니터 부족	5
서가의 개방	5
필요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5
전산시스템의 이용자 불편	4
시청각 자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4
시설부족	4
자료의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 미흡	4
일반인의 사용이 어려움	3
자료의 배열상에 있어 단행본과 간행물에 혼란	3
찢어진 자료가 많다	3
유물명칭이 일체적이고 분류가 미흡	3
불필요한 영화들이 다수 있다	2
국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영화들이 없다	2
외국영화의 경우 원제목과 한글을 동시에 실었으면	2
대출기간이 길어 자료부족	2
비디오 고장이 많다	2
도서관같은 안정된 분위기가 아니다	2
일련번호 안내문이 없다	2
연극대본의 경우 원하는 대본을 찾기가 어려움	2
목록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2

있다.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을 볼 수 있으나 크게 구분하면 국내외의 최신자료의 부족과 전산화의 필요성, 체계적인 자료관리의 미흡, 장소 및 시설 부족 등의 제반 환경문제, 기타 자료관리상의 개선할 점 등으로 볼 수 있다.

자료측면과 동시에 각 단체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자료 관리체제가 이용자의 자료활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 역시 88.5%가 보통 정도이거나 그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11.5%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의 정보자료 자체의 보관이나 관리에 대한 응답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자료의 전반적인 관리체제에 대한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에 대한 반응을 응답수가 많은 것부터 나열하면 〈표 6〉과 같다.

불편한 점에 대하여 이용자가 바라는 개선 방향에 대한 건의도 매우 다양하나 자료부족과 분류체계의 미비, 전산화가 되지 않아 이용상의 불편이 가장 많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방문시 주로 이용하는 자료에 대한 응답은 각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이나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자료의 매체나 형태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매체나 자료에 편향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이상적인 이용으로 보여진다.

방문한 단체에서 원하는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구하는가에 대한 응답의 대부분이 다른 유사단체를 방문한다(58.8%)이며, 나머지는 포기하거나(24.3%) 외국에 의뢰 또는 관련업계 종사자, 대형 서점 방문 등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유사

〈표 6〉 문화예술단체 자료 이용시 개선할 점

편 리 한 점	불 편 한 점
다른 곳보다 전문기관으로서 자료가 충분	분야별 소장자료의 절대적 부족
담당자의 친절과 성실	전산화 미비로 검색 불편
다양한 영화 보유	소장자료에 대한 홍보 부족
자료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어 용이	자료실 협소
무료 이용	분류체계의 미흡
문헌참고, 복사, 녹음	첫 방문자의 자료검색 불편
영상, 음향실이 마련되어 이용에 편리	부대시설 부족 혹은 파손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유물자료 등의 직접 이용에 어려움
복사가능	이용 절차상의 번거러움
종류별, 장르별 구분이 편리	영상자료의 복사 불가능
대출이 편리	자료대출에 제한이 많음
직접 열람 가능	자료구입의 속도가 느림
개가식	이용자의 안내 무성의

단체를 방문한다는 대답에서 각 단체의 상호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박물관, 대우재단(아주 많은 응답), 문화재연구소, 국회도서관 등이며, 국립국악원의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악관현악단, 실내악단, 한국교육개발원 등이며, 국립국어연구원의 경우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정신문화연구원 등, 국립중앙극장의 경우는 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의 경우는 영화진흥공사, 방송개발원, 언론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으로, 영화진흥공사의 경우는 영상자료원, 국회도서관, 외국문화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자료 이용시에 담당자의 봉사 정도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정보봉사시스템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각각 응답하게 하였

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보봉사시스템의 이해 정도와 담당자에 대한 의존도 간에 상호 역관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자의 봉사 정도에 만족도가 보통 이상에서 매우 만족이 전체 응답자의 94.5%로, 다소 불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의 5% 내외와 비교가 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봉사시스템에 대한 이해 정도는 모르는 편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77.9%이며, 조금 알고 있다가 20.2%, 그리고 잘 알고 있다는 경우는 매우 낮은 응답으로 이는 정보봉사시스템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기 때문에 담당자의 봉사에 의존하게 되며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문화정보망 구축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용자가 본 각 단체의 정보봉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정보봉사시스템의 문제점

순위*	문 제 점
1	자료 전산화 미흡
2	이용절차 안내 미흡
3	자료정리의 미흡
4	홍보부족
5	분야별 자료의 구분
6	참고봉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
7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른다
8	개방시간이 짧아서 자유롭게 이용곤란
9	열람시설의 확대
10	최근 자료 구비
11	유물에 대한 우리식의 정확한 분류와 명칭 미흡
12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
13	목록찾기에 어려움
14	컴퓨터 단말기가 부족
15	외부 컴퓨터망과 연결 (예: 천리안)
16	전체적인 파악이 곤란

* 순위 1이 가장 절실한 문제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문화예술 정보 봉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대한 응답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바람직한 문화정보 운영체제

순위*	운 영 체 제
1	자료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 요청
2	전산화 및 분류체계의 확립
3	타기관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 (예: 영화진흥공사-영상자료원)

〈표 8〉 바람직한 문화정보 운영체제

4	가정, 학교, 기타 자료관과 상호 연결된 전산망 구축 운영
5	예술자료 정보를 발간 배포
6	음향영상 등 시청각 자료실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다양한 홍보 실시
8	전문직에 의한 독립적, 총괄적 관리 요망

* 순위 1이 가장 바람직한 봉사체제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자료를 관리하는 각 단체 자료실의 자료 전반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산화(데이터베이스화) 또는 정보망 구축에 대한 질문에 아주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6.5%이며, 지금 상태로 독립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1.1%, 유사한 자료들로 구성된 부분적인 전산화가 좋다는 응답이 12.4%로 국가적인 전산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단 한명도 없어 이용자 모두가 국가차원의 문화정보망 구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종합분석 및 제언

4.1 종합분석

4.1.1 문화예술자료 현황

한 국가의 문화예술 관련정보의 총보유량을 조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21개 단체 및 기관의 소장 정보량은 〈표 9〉와 같다.

〈표 9〉 21개 문화예술단체 총정보량 (1994년 3월 현재)

구 분	세 부 내 용	단 위	총보유량
도서류	단행본, 학위논문, 논문집, 보고서	권	2,181,142
음악류	악보, 고악보, 음반, 녹음테이프, 카세트, 카트리지, CD류, 릴, 스코아	점	893,302
영화상류	슬라이드, VTR테이프, 사진, 스크랩북, 필름, 마이크로필름, 사진원판, LD	점	137,279
포스터, 전단류	포스터, 포스터, 팜플렛, 전시회카드, 전단류, 공연프로그램, 전단, 신문스크랩	점	33,387
실물	유물(도자기, 회화, 금속공예품 등) 무기, 유품, 복제소장품, 인쇄 및 필사본 서화류, 악기	점	272,913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 동인지	종	3,836
대본류	연극대본, 영화대본, 시나리오	권	25,806
색인류	영화위크슈이트, 기사색인	건	18,600
설계도면	문화재 설계도면, 무대 디자인대장 의상소품, 디자인대장	권	495
총람류	개인 및 단체정보, 문화정보, 주소록 회원관리	권	111,510
통계류	문화체육부 통계	건	7,777

〈표 10〉 문화예술단체별 주제특성

기 관 명	주 제 특 성
국립국악원	국악관련자료(악보포함)
국립국어연구원	국어학 관련자료(북한 자료 포함)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관련 유물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극장 공연작품에 관한 자료 (대본, 악보, video tape, 녹음 tape)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및 유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계자료(인명, 단체, 전시포스터), 소장작품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된 공연자료
독립기념관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에 관한 자료 및 유품
문화체육부	문화관련 인명 자료
서울예술단	자체공연과 관련된 자료(비디오, 프로그램, 대본 전단, 포스타, 티켓)
영화진흥공사	영화관계 자료(필름은 제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향토자료, 북한자료 자료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통공예품
한국영상자료원	영화관계자료(필름, 시나리오, 포스타)

이들 기관들은 국가 문화정보의 단순한 정보 소장기관이 아닌 분야별 문화활동의 거점 기관으로서 일종의 분야별 국내 문화정보망의 생산자에 해당한다. 각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의 주제특성은 <표10>과 같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정보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이를 핵심으로 하여 관련기관으로 확장할 경우 국가 전체 소장정보로의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4.1.2 현황분석 및 문제점

우리나라 국가 문화예술자료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문화정보망은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이 발표된 적이 없다.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5대 기간전산망 계획이나 최근의 정보촉진법에서도 고려된 바가 없으며, 가장 성격적으로 유사한 도서관정보망 조차도 자체망 없이 교육·연구 전산망에 분산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문화정보망의 국가적 중요성이나 기여도에 비추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화정보망은 문화예술정보의 다양성, 복잡성, 다중매체성 등으로 그 처리과정이 첨단 정보기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 문화정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정보망 계획의 수립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문화정보망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정보처리 체계의 미비이다. 문화정보 뿐 아니라 실물정보, 원시정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보처리 규격이 없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21개 기관의 소장정보는 예술작품 실물, 박물관 유물 및 유품, 영화필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도서와 비도서류이다. 이중 도서를 제외한 정보들의 분류체계와 정보의 기술에 대한 표준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실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외국의 표준들을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서의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국가표준인 KORMARC을 따르면 되겠지만 비도서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가표준이 없고 다만 연구결과만 나온 상태이다. 따라서 비도서류를 수용할 수 있는 포맷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도서 및 비도서의 전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전문데이터베이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하이퍼미디어 시스템 등의 기술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맷의 개발은 검토되어야 한다. 즉 MARC라는 것은 서지데이터교환용 포맷으로 도서관 자료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다. 문화예술정보는 도서관자료 뿐만 아니라 공연작품, 미술품, 박물관 유물 및 유품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MARC에 수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 단체나 기관에서 생산된 문헌정보의 완전성과 기관간의 호환성 부족으로 공동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정보 소재 파악이 어려워 정보의 중복 수집, 중복 처리가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간의 정보 수집 담당 분야간의 한계를 관리할 수 없어 필수적인 정보들이 국내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정보 누락 현상이 우려된다.

둘째, 정보처리 인력 및 기술축적의 미비이

다. 각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서 필수적인 정보처리 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일상 업무 이외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할지라도 적절한 사양 설계, 기능 검수, 진도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실패할 확률이 크다. 조사 시점 현재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정보관리 및 처리를 위한 인적 구성을 보면, 전산분야 전문직의 경우 전체 21개 기관에서 총 36명으로 각 기관 평균 1.8명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관리에 절대 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과 문화체육부의 전산직 인원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그외 여타 단체의 정보관리에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가공분야는 전체 21개 기관에서 사서 31명과 학예전문직 72명으로 기관 평균 5.1명에 불과하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사서 양성과 충원이 시급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예전문직을 정보가공 인원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의 인원은 더 열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음향, 영화상 정보처리를 위한 전문직들은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이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술훈련 계획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21개 문화예술단체 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2-3개의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국내 문화예술 중심으로서의 역할에 비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산화를 시작하고 있는 기관도 아직 전산화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처리 인력

과 정보처리 기술은 소장정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화예술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산학, 문헌정보학, 컴퓨터 그래픽, 국어학, 음향학, 고고학, 미술, 음악, 영화 등의 배경을 갖고 있는 정보처리 전문가는 물론 화상처리, 3차원 데이터베이스, 자연언어처리, 전자사전, 의미구조,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동화상, 음악 데이터베이스, 추론엔진, 병렬처리, 자동번역, 검색기법 등의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의 중복 현상이다. 문화정보망이 물리적인 망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예술정보의 특수성, 고유성, 전문성 등이 유지될 때 가능하다. 각 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 중 상당 부분이 중복 내지는 분산되어 있음이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공사는 영화관련 자료의 중복이 심하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자료관은 각 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부 산하 단체들의 목표, 역할, 기능 등이 중복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산하 단체들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의 중복 현상은 문화정보망 구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복된 예산과 인력 및 시간을 문화정보망 구축에 기울인다면 망의 구축이 앞 당겨질 수도 있다.

4.1.3 문화예술관리상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제도적으로 문화예술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뒷받침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단

체들의 정보관리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즉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기술지원, 인원증원 등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산화에 대한 인식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정보유통 체계상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해서는 이를 운영이나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전산화 운영 계획의 수립이 전무한 탓에 우선적인 현업에 급급한 졸속적 인원 배치가 큰 문제로 부각됨은 물론 그나마 종사인력도 각 문화예술기관의 관련업무를 수행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예산의 부족이다. 다각도의 전산화 계획 수립 노력에 의해 정부 및 각 기관의 전산화 인식은 매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 이에 할당되는 예산액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전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도 있음을 볼 때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심각한 위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산 책정이 전산화 구축에 있기 보다는 기존의 자료구입이라든지 기존의 열악한 전산시설에 대한 유지비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정작 개발해야 할 시스템은 아직도 예산상 요원한 실태에 머물러 있다.

셋째, 문화예술정보처리에 필요한 기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정보처리는 컴퓨터만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 처리, 3차원 데이터베이스, 하이퍼미디어 시스템, 음악원을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해서는 컴퓨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기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컴퓨터, 광디스크 장치, CD-ROM 장치, 레이저디스크, TV 주변기기, 컬러 스캐너, 컬러 하드카피, 카메라, 그래프 처리기 등이 필요하다. 만약 3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주변기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이 개인용 컴퓨터(PC)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표준화의 결여상태이다. 문화정보망 구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정보의 공동 이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의 표준화가 유지되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문화예술 관련기관에서 개발 운영하는 정보는 그 독자성 때문에 정보의 중복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의 통일, 기종 상호간의 호환성 확보, 정보관리 코드의 체계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정보망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제 언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소프트웨어 보다는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1세기 정

보산업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의 데이터베이스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보, 즉 문화예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것이 정보산업에 있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고, 국민에게 문화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길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운영중인 국가 기간전산망에 물리적인 문화정보망이 추가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은 행정망, 교육망, 공안망, 국방망, 금융망이 있는데 여기에 문화정보망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최근들어 문화의 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문화예술과 정보산업이 결합하여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여 문화예술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가 국가의 주요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예술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기존의 국가 전산망에서는 문화예술정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정보는 과학기술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민에게 균등히 문화예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차원에서 제공하여야 하고, 그것은 문화정보망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화정보망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망, 앞으로 계획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망, 미술관망 등을 흡수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정보란 단 시간에 이

록될 수도 없고, 기존의 국가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정보망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문화체육부 산하기관들의 정보처리현황과 전산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정보망을 관장하는 전담기관이 시급하다. 이 전담기관은 새로 설립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산하기관들 중 인력과 장비면에서 우수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전담기관이 수행할 기능으로는, 문화예술정보처리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 문화정보망 구축작업 및 망 운영업무, 문화예술 정보처리에 필요한 장단기 기초 기술연구, 문화체육부 산하단체의 문화예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시스템 개발지원, 문화예술정보처리에 필요한 고유의 기술 개발, 문화정보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의 조정업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외국의 문화정보망과 접속하기 위한 연구 등이다.

셋째, 문화예술 정보처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정보는 정보의 속성상 멀티미디어가 되어야 이용자에게 감흥과 감동을 전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산전문요원으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배경을 갖고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서 문화예술자료의 보관상태 및 이용현황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정보의 중요성은 과학기술정보와는 다르다. 전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지만 후자는 그 반대이다. 또한 문화예술정보는 원본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본 또는 실물에 손상이 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문화체육부 산하단체들의 정보 보관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예술정보가 없어지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관리수준도 초보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용현황면에서 볼때 외부 이용자보다는 내부 이용자 중심이어서, 국민들이 이용은 커녕 문화예술정보의 소재도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만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상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문화종속을 탈피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문화체육부 산하단체들의 정보관리 및 정보처리에 필요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산하단체들은 자료실과 전산실을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들을 뒷바침하는 제도적 및 행정적 체계가 미비하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도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행정직 또는 기능직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정보망 구축이 국가차원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산하단체들을 도외시한 문화정보망 구축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산하단체의 정보관리 및 처리부서들을 제도적으로 독립시켜야 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정보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전산기기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정보망은 문화체육부 산하단체들이 보유한 고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을때 가능하다.

여섯째, 민간예술단체가 문화정보망으로 흡수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의 범주란 그 정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민간예술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정보는 문화체육부 산하단체들의 정보보다 다양하고 양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을 문화정보망에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및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일곱째, 문화정보망에 수록되는 문화예술정보들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정보의 저작권은 개인 또는 국가에 있을 수 있다. 이들 정보들이 문화정보망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이용될 때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러한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 보다는 저작권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문화정보망을 통해 국내외 정보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정보이용료, 즉 수익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정보망에 수록되는

정보는 과학, 기술정보와는 다르다. 이들 정보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보들이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외국의 이용이 급증할 것이다. 즉 문화정보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문화체육부 산하단체들의 협력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산하단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의 시소리스 개발, 영화진흥공사와 영상자료원의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개발, 문화재관리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3차원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이 서로 관계가 있는 산하단체들이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악원. 1993. 국악의 전당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연구원. 1992.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국립민속박물관. 1993.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도서출판 신유.
 국립중앙극장. 1993. 국립중앙극장 신축이전 20년사.
 국립중앙극장. 1991.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1993. 국립중앙도서관 전산화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1993. 국립중앙도서관요람.
 국립중앙박물관. 1993. 연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공연윤리위원회. 1993. '92년도 심의백서. 서울: 공연윤리위원회.
 대한민국정부. 1985. 박물관소장유물관리편람. 국립중앙박물관고부.
 독립기념관. 1993. 독립기념관 전시품 요람.
 독립기념관. 1990. 독립기념관소개안내자료.
 독립기념관건립사편찬위원회. 1988. 독립기념관건립사. 독립기념관.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1986. 편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4. 문예단체 자료 및 정보처리 현황조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문화정보망 구축계획(안). 서울: 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 전산개발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국가문화예술 정보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문화예술데이터베이스 구성의 방향모색.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영상자료원. 1993. 한국영상자료원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영상자료원. 1993. 영상문화재와 영상자료원의 역할.
 Greer, R. C. & M. Hale. 1982. "Community Analysis Process." In Carter, J. R. ed. Public Librarianship: a reader. Littleton, CO: Libraries Unlimited.
 Krikeles, J. 1985. "Information-Seeking Behavior: Patterns and Concepts." Drexel Library Quarterly 19: 5-20.

Rouse, W. B. & S. H. Rouse. 1984.
"Human Information Seeking and
Design of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
gement 20: 129-38.